

문화

성철·백석·김환기... 그들의 삶과 문학을 다시 접하다

서적 출간·특별전·학술대회 등 추모 문화행사 풍성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 등 한시대를 풍미했던 종교·문화인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禪僧) 성철(1912~1993년) 스님과 ‘나와 나라사와 흰당나귀’ ‘여승’ 등의 시인 백석(1912~1996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이 펼쳐진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엄격한 수행 규칙을 지키며 맑고 향기로운 말씀을 남긴 성철 스님이 설립한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올해는 성철 스님 사상과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살펴보는 토론회 등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연다.



성철스님



백석



김환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엄격한 수행 규칙을 지키며 맑고 향기로운 말씀을 남긴 성철 스님이 설립한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올해는 성철 스님 사상과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살펴보는 토론회 등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연다.

재단은 서울 조계사에서 오는 3월 29일 ‘퇴옹 성철과 동점논쟁’을 주제로 첫 학술행사를 갖고, 같은 장소에서 5월 24일 ‘돈오돈수와 퇴옹 성철의 수준’, 9월 27일 ‘퇴옹 성철의 중도론’, 11월 22일 ‘간화선과 위파사나’에 대해 토론했다.

관련 문화 행사도 결속된다. 3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스님의 일대기가 담긴 스님의 유품, 유품, 사진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 열린다.

또 서예가이자 전각가인 김양동 화백은 범어집 ‘본지풍광’에 나오

는 말씀을 서화로 꾸민 ‘성철스님의 범어서화전’을 준비 중이다. 가을에는 박대성 화백이 성철스님의 행적지와 초상을 수묵으로 그린 전시회를 연다.

또 스님의 생애를 담은 ‘성철 큰스님 행장’, 말씀에 사진을 곁들인 ‘본래 눈을 뜨고 보면’ 등 관련 서적도 2월말 출간된다. 스님의 일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도 5월말 선보인다.

성철 스님의 삶에 대해 자세할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IT 소통’에도 나선다. 재단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비디오 클립,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한다. 재단은 아울러 성철 스님의 행적지를 돌아보는 순례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한다.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백석의 문학 세계를 기리는 학술대회와 문학제도 올해 문학계의 주목받는 행사다.

백석은 전통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재로 서정적인 시어와 다양한 기

법의 시를 발표했지만 재북(在北) 시인의 탓에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가 지난 1988년 남·월북 문인 해금 조치 이후에야 본격 조명됐다.

올해 백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시학회(회장 이승원 서울여대 교수)는 4월말께 ‘백석과 그의 시대(가제)’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5월말 한국비평학회(회장 최호호 고려대 교수)도 백석의 작품세계에 대한 학술행사를 이어간다.

또 백석의 시와 소설을 망라한 전집 출간도 추진되며, 매년 탄생 100주년 문인문학제를 열고 있는 대한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도 4~5월말 백석의 삶과 문학을 집중 조명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국 근대 추상 회화의 선구자인 신안출신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도 오는 2월 26일까지 서울



신안 출신 김환기 화백의 탄생 99주년을 맞아 서울 갤러리현대에서 열고 있는 특별전 모습. /연합뉴스

사간동 갤러리현대 본관과 신관에서 열린다.

김환기 탄생 99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20대 중반에 제작한 1930년대부터 작고 직전까지의 작품 64점을 시대별로 소개한다. ‘메아리’(1964년작) ‘귀로’(1950년

대) ‘황아리와 꽃 가지’(1957년), ‘무제’(1964~1965년) 등 미공개작 4점도 포함됐다. 갤러리 본관은 1930~1963년 구상작품, 신관은 뉴욕시대로 일컬어지는 1963~1974년 추상작품으로 꾸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젊은 선율 감동이 밀려온다

2월 3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 독주회

지난해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이 독주회를 갖는다. 2월 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B장조 K.454’, 이차이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소나타 제2번 A단조 ‘강박관념’(자고 띠보를 위한),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작품번호 34중 4개의 전주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 작품번호 100’을 들려준다.

4세때 처음 바이올린 활을 잡기 시작한 이씨는 13세 때 대전 시립교향악단과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했으며 중학교 재학중 유학을 떠나 런던 퍼셀 음악학교를 졸업했다. 런던왕립음대, 독일 아헨 국립음대와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이씨는 독일 하겐시립교향악단 악장, 독일 크로스뎀베르크 스트라 단원 등으로 활동했다. 피아노 반주는 서현일씨가 맡는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재단, 문화관광탐험대 모집 2월 10일 접수마감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제2기 문화관광탐험대(이하 탐험대)를 모집한다.

제2기 탐험대는 광주의 숨은 명인과 명소 등 명품 관광 자원을 발굴,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홍보 및 상품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탐험대가 발굴한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전시회 개최나 광주문화관광지도 및 안내책자의 기초자료 제공 등 광주문화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15명으로 구성된 제1기 탐험대는 광주지역 60여곳의 명소 등을 탐방한

뒤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물인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I’을 발행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20~30대 광주시민이나 광주 거주 외국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10일이며 약10명을 선발한다. 탐험대원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전문교육 및 전시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74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안갤러리 ‘개인·단체전시 공모’ 2월 29일까지 접수

시안갤러리는 ‘2012년 개인전 및 단체전시 공모’에 참여할 작가와 단체들의 포트폴리오를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개인전 및 단체전시 경력이 있는 작가이며 회화, 조각, 설치, 영상, 공예 등 시각예술 전 분야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시안갤러리카페(http://cafe.daum.net/siangallery)에 서

다온로드에 작성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전시공모에 당선된 작가단 단체에게는 전시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준다. 문의 062-570-23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자녀 돌보미 서비스’ 운영

광주여성단체협의회 2월 3일까지 이용자 모집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나신영)는 손자녀 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손자녀 돌보미 및 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사업은 협의회가 광주시 공모에 당선돼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신청 자격은 손자녀를 돌볼 70세 이상의 조부모와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0~만8세 이하의 영유아 가구

하위 70%이하 가정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에 한정한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까지 인원은 선착순 160명이다.

지원자들은 지원신청서(다음 카페 광주여성)와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복시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62-363-940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용띠 화가들, ‘2012 비상’을 꿈꾼다 2월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용띠 화가들이 뭉쳤다. 광주미술협회는 오는 2월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지역 용띠 화가들의 작품을 모은 ‘2012 비상’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용운·김일근·노미화·류신·문형선·송근미·심로사·이건용·이성용·이호동·임수영·정강임·정선·최은태씨 등 1976년생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조선대, 전남대, 호남대 95.96학번으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들이다.

문형선씨는 산자락의 경계를 흐릿하게 표현한 ‘꿈꾸는 풍경’을 전시하



최은태 작 ‘꽃’

고, 최은태씨는 강렬한 색으로 꽃의 특성을 명료하게 묘사한 ‘꽃’연작을

전시한다. 문의 062-222-8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